# 컴퓨터의 발전 역사와 세대별 특징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작고 빠른 형태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 이 발전 과정을 보면 컴퓨터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1세대 컴퓨터 (1940년대 후반 ~ 1950년대 중반)  
: 진공관을 사용했던 시절이야. 엄청 크고 무거웠고, 열도 많이 나서 관리하기 힘들었어. 프로그래밍도 기계어로 해야 했고, 속도도 지금에 비하면 정말 느렸지. 하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산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

2세대 컴퓨터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반)  
: 이젠 진공관 대신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덕분에 크기도 작아지고 전력 소모도 줄었지.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셈블리어나 간단한 고급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 이전보다 훨씬 실용적인 컴퓨터였던 거지.

3세대 컴퓨터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초반)  
: 이때부터는 집적회로(IC)를 사용하게 됐어. 컴퓨터가 더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졌지. 다중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지고, 운영체제라는 개념도 도입됐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비즈니스에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

4세대 컴퓨터 (1970년대 초반 ~ 현재)  
: 이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PC가 나왔어. 크기는 더 작아지고,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저장 용량도 크게 늘어났지. 개인이 컴퓨터를 갖고 사용하는 시대가 열린 거야. 그래픽도 발전하고,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해졌어.

5세대 컴퓨터 (현재 ~ 미래)  
: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인공지능, 음성 인식, 머신러닝 같은 기술이 적용된 형태야.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지. 앞으로는 더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될지도 몰라. 진짜 똑똑해진 거지.

이렇게 보면 컴퓨터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야.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돼!